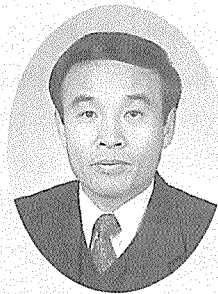


# 국제원유시장 동향과 정유산업의 대응과제



김 명 환

〈 LG-Caltex정유 업무팀 상무 〉

## 1. 글 머리에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배럴당 10달러 수준이던 국제 원유가가 30달러 이상으로 치솟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유가급등은 일차적으로 석유생산국기구인 OPEC의 감산조치에 따른 세계적인 석유수급 불안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70년대의 제 1·2차 유가파동 이후 유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지금의 고유가 행진은 그 동안 유가가 지나치게 낮게 유지되어온 데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가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경제성장의 위축과 물가상승의 원인이 된다. 더욱이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유가인상분 만큼 곧바로 수입액이 늘게 되고, 이는 국제수지 및 거시경제지표의 악화로 이어진다. 이런 고유가로 인한 피해는 우리만 받는 것은 아니다. 유가가 오르면 전세계의 석유소비자는 유가가 오른

만큼의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국가 재정이 넉넉한 일부 국가에서는 유가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시키지 않고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는 정책을 시행하지만 그것 또한 부담은 마찬가지다. 유가 인상분이 가격에 반영되면 유류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재정으로 해결하면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유가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피해가는 묘수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얼마 전 유럽에서는 고유가에 항의하는 일부 시민들이 저유소와 주유소를 점거하는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정부의 가격정책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당사국 정부는 OPEC의 담합에 의한 감산조치를 비난하는가 하면, OPEC은 석유소비국의 높은 석유세를 탓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상충되는 면이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의당 주장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에게는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혼돈스러운 것 또한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고유가의 영향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비단 우리에게만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석유를 사용하는 세계의 모든 소비주체에게 똑같은 영향을 준다는 점이고, 다만 이런 고유가 환경을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하는가의 문제는 각자의 몫이라는 점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현시점에서 우리가 현재의 고유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라 하겠다.

## 2. 국제석유시장의 동향

작년 4월부터 시작된 국제 원유가의 급등은 1999년 3월 23일 제107차 OPEC총회에서 14개 산유국이 하루에 210만 4천 배럴의 원유를 추가로 감산한다는 발표한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감산량은 세계 원유생산량의 2.8%에 불과했지만 원유 가격은 20% 이상 올랐으며 그 후 1년 만에 걸쳐 주요 소비국의 낮은 재고량과 석유 선물시장에서 투기자금의 유입이 맞물리면서 국제유가는 2배 이상 올랐다. 석유는 일반재화와 달리 수급탄력성이 매우 큰 전략적 상품이며 국제석유시장에서 OPEC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셈이다.

OPEC을 간단히 살펴보자. OPEC은 산유국이 결성한 석유수출국 회의체로서 사우디를 비롯하여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산유국과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알제리, 리비아 등 총 11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이들이 생산하는 원유는 하루 3,070만 배럴 내외로 전세계 석유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OPEC이 줄기차게 추구하는 목표는 안정적인 고유가 유지이다. 과거에 OPEC이 유가 인상을 노리고 결정한 감산조치약속을 몇몇 회원국이 잘 지키지 않은 적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별한 주변 상황 때문이었으며 OPEC의 목적은 변함없이 안정적인 고유가 추구라고 보아야 한다. 세계 석유수급이 안정적인 때는 OPEC 내에 약속을 어기는 회원국이 늘어나 카르텔의 힘이 약했었고 석유수급이 불안정하면 OPEC

은 공고한 단결력을 과시하면서 고유가 상황을 만들어 왔다. 석유공급이 OPEC의 독점구조하에 놓여 있는 시장에서 국제석유시장의 동향은 세계적인 석유수급상황이 얼마나 안정적이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작금의 고유가는 그 동안 저유가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세계적인 경기상승으로 석유수요가 증가하고, 석유메이저들의 합병 등 구조조정에 따른 원가 절감 방안으로 낮은 재고를 유지한데 따라 OPEC의 감산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된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OPEC의 카르텔이 존재하는 한 석유시장은 언제든지 시장의 실패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환경 때문에 석유산업은 자유화가 만능은 아니며 OPEC의 공급독점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석유 수급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석유 소비자 입장에서 추구하여야 할 방향이라고 보여진다.

세계 석유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로는 세계 경기의 순환에 따른 소득수준의 변화, 엘니뇨 또는 라니냐 현상으로 대변되는 기상이변 등을 들 수 있으며, 실제 국제 석유시장에서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마치 증권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만큼이나 많다. 최근에는 투기성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유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정보통신의 발달과 금융거래기법의 발달로 인해 세계 각지의 정보가 순식간에 공유되고 금융거래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유가변동이 더욱 복잡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추이로 보아 앞으로도 국제유가는 OPEC의 카르텔이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너무 낮은 유가는 고유가를 불러온다. 왜냐하면 OPEC은 앞으로도 수십년 이상 쓸 수 있는 원유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원유 생산원가도 배럴당 2달러에서 6달러 수준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향후에도 공급측면에서 강력한 힘을 갖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유가의 폭락이나 폭등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 석유수급상황이 안정되면 유가는 OPEC에서 밴드로 정한 배럴당 25달러 수

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누구도 모른다. 다만 앞서 서술한대로 국제 석유수급 여건을 분석해 봄으로써 짐작만 할 뿐인 것이다.

### 3. 정유산업의 대응과제

고유가 환경에서 정유산업의 대응과제는 수급안정을 기하면서 가급적 낮은 가격에 석유를 공급하는 일이다. 이는 현행 석유사업법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기업의 존재 이유는 지속적인 이윤의 창출이며 이를 위하여는 끊임없이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유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정유산업의 할 일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고유가 상황이 전개되자 여러 곳에서 그 동안 우리 정부나 기업이 너무 무방비 상태로 대처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을 많이 듣고 있다. 예를 들면 유전개발투자를 소홀히 해서 비싼 원유를 수입할 수 밖에 없다가 저유가 시절에 석유비축을 많이 하지 않아서 고유가 상황에 우리 나라가 가장 취약하다든가 하는 등이 그 요지이다. 일견 일리가 있는 의견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비난할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유전개발투자에 소홀했다는 부분부터 살펴보자. 유전개발 투자를 많이 하여 자국의 지분 원유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국내 도입원유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유전개발투자의 경제성이다. 유전개발사업이 이윤이 많이 나는 사업인데 왜 국가나 정유사가 투자를 게을리해서 이윤창출을 하지 못하느냐고 비난해야 맞다. 물론 유가파동이 나서 원유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외환사정이 어려울 비상시에는 자국 지분원유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비상시를 대비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가로 경제성이 낮아 손해를 보더라도 보충료 성격으로 투자를 해두었어야 했다는 주장이 옳은 표현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모든 자원을 이윤이 나는 쪽으로 배분해야 된다는 전제에 동의

한다면 위의 문제는 보다 분명해진다.

다음으로 저유가 시기에 비축을 많이 해주지 않았다는 비난은 더욱 황당하다. 현재 국제석유시장이 주식시장과 동일한 구조라는 것을 알고 나면 위의 비난은 마치 주가가 낮을 때 주식을 많이 사두지 않았느냐는 핀잔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비상시에 대비해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비축유는 이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야 맞다.

이렇게 보면 고유가 시기에 정유산업의 대응방안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석유파동 등 비상시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원유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고, 둘째는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끊임없는 혁신으로 기업경쟁력을 기르는 일이다.

그런데, 첫번째 과제는 정유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석유 수급안정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도화해야 한다. 국내 석유소비자가 장·단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저가에 석유를 소비할 수 있으려면 국내 석유수급안정을 위한 제도는 어떠한가 하며, 시너지 향상을 위한 경쟁구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를 통해 시장경쟁의 료를 만들어 시장실패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어 유가파동이 우려될 때마다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예나 지금이나 석유 공급측면의 기본적인 여건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소요되는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지역에서 들여와야 하고 OPEC의 카르텔은 여전히 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석유시장이 자유화된 지금 건전한 경쟁의 료이 시급하다고 본다.

두번째 과제는 전적으로 정유사 몫이다. 머지않아 국내정유사도 외국의 메이저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고 볼 때 경영활동의 여러 면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건전한 경쟁의 료는 기본 토양이 된다는 점이다. ☺